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에 관한 연구

혜천대학교 의료정보과

이 현 주

Abstract

Spiritual Well-Being and Perception of Death in Nursing Students

Hiun Ju Lee, M.A., R.N.

Department of Medical Informatics, Hyecheon College

Purpose: A quantitative descriptiv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perception attitudes of death in nursing students.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and 175 data were collected. Collected data were computed and analyzed using SPSS10.0 for Win. 1)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identify demographic data, and 2) both t-test and ANOVA statistics were used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spiritual well-being /or perception attitudes of death and demographic data of the participants. 3)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main variables.

Results: 1) The mean of spiritual well-being score of the participants was 50.9943 ± 10.7235 .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religion /or doing economic activity and spiritual well-being were found. 2) The mean of perception attitudes of death was 20.4914 ± 2.6280 .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or age and perception attitudes of death among participants. 3) A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perception attitudes of death of participants was also found($r=.261, P=.000$).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shows that spiritu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as caregivers of terminal patients is important when the perception of death of terminal patients is considered. Previous studies indicate that caregivers' perception attitudes impact on those of terminal patient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not only perception attitudes of death and spiritual well-being in terminal patients, but also those of caregivers are importantly required to consider in educational programs in relation to spiritual care of terminal patients.

Key Words: Spiritual Well-being, Perception attitudes of Death, Nursing student

책임저자: 이현주, 대전 서구 복수동 333

혜천대학 의료정보과

Tel : 042-580-6458, Fax : 042-580-6227

E-mail : hjlee@hcc.ac.kr

서 론

최신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명연장을 추구

해 왔으나 죽음은 여전히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의 자세와 태도는 임종 전 개인의 고통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임종 준비는 이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며, 임종 전 고통과 삶의 질의 문제로부터 가능하면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호스피스 전문가의 도움은 필요하다. 특히 말기질환과 같은 위기상황에 의해 임종을 맞게 되는 환자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로 인해 자신의 질병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임종과정이 순조롭지 못하게 된다[1,2]. 그러므로 이들의 고통과 힘겨움에 대해 가까이에서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반응하게 되는 간호제공자에게는 전문인으로서의 적절한 대응이 기대된다.

간호제공자의 임종 간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간호제공자 본인의 인식태도이다[3]. 이는 임종을 맞이하게 된 대상자의 죽음인식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임상 간호사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거나 심리적인 부분의 간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5]. 이를 위해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이나 종교, 대화기법에 관한 교육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영적간호 교육으로 인해 간호제공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6,7]. 이는 현재의 프로그램이 대체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어서 교육의 내용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이를 통한 간호제공자의 내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영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은 대상자의 영적안녕 상태 뿐만 아니라 간호제공자의 영적안녕 상태에 대한 사정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간호제공자의 영적안녕 상태는 죽음을 인식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어 다시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상자의 영적안녕 상태에 초점을 두어왔으며 간호사나 간호대학생들의 영적안녕 상태와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임종과정의 환자들을 돌보게 될 간호대학생들의 영적안녕이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로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영적간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도구 및 자료수집과정

연구의 대상은 대전시내 A대학 간호학과 1학년 재학생 197명이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2003년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이며,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에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기입 작성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영적안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Ellison[8]이 개발한 영적안녕 척도를 전 경구 외[9]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치를 얻은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종교적 안녕에 관한 6문항, 충족감에 관한 5문항, 무의미감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안녕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37$ 이다.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이효경[10]이 개발하여 이원희와 이영자[3]가 호스피스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관한 인식 조사를 위해 재구성한 도구를 일부 수정 및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모두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죽음에 관한 태도 4문항, 임종을 앞둔 환자 및 환자 고통에 관한 4문항, 생명연장에 관한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2$ 이다.

2.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총 191부이다. 이들 중 누락된 응답이 있는 16부를 제외한 175부의 자료를 SPSS 10.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산처리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고, 2)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의 분석을 위해 통합점수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이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사용하였으며, 4)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위해서는 Pearson's correlation efficient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분포에서는 여성이 172명(98.3%), 남성이 3명(1.7%)으로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또한 대상자가 대학생인 만큼 연령의 범위는 18세에서 32세로 비교적 크지 않았다. 평균 연령은 19.7486 (SD: 2.3056)세였고 그룹별로 연령을 살펴보면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경우가 118명(67.4%)으로 가장 많았으며, 20세에서 24세의 경우가 48명(27.4%)으로 18세 이상 24세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이성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귀는 친구가 없다' 라고 응답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N=175)

Characteristics	Parameter	N(%)
Gender	Male	3 (1.7)
	Female	172 (98.3)
Age (yr)	≥19	118 (67.4)
	20~24	48 (27.4)
	25~29	7 (4.0)
	30≤	2 (1.1)
Having friendship with the opposite sex	Yes	44 (25.1)
	No	115 (65.7)
	Other	16 (9.2)
Residential area	Urban	123 (70.3)
	Rural	29 (16.6)
	Other	23 (13.2)
Religion	Christian	56 (32.0)
	Catholic	17 (9.7)
	Buddhism	30 (17.1)
	None	71 (40.6)
	Other	1 (0.6)
Doing economic activity	Yes	39 (22.3)
	No	136 (77.7)
Economic status	High	3 (1.7)
	Middle	148 (84.6)
	Low	24 (13.7)
Living arrangement	Extended family	25 (14.3)
	Small family	146 (83.4)
	Living alone	4 (2.3)
Health status	No problems	86 (49.1)
	Not special	75 (42.9)
	Have problems	14 (8.0)

대상자가 115명(62.7%)이었으며 '있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44명(25.1%)이었다, 거주지는 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123명(70.3%)으로 농어촌 등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n=29, 16.6%)보다 많았으며, 종교별로는 '종교가 없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1명(40.6%)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인이 56명(32.0%), 불교가 30명(17.1%), 천주교가 17명(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본인의 경제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대다수(n=136, 77.7%)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9명

(22.3%)은 하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다. 가족의 생활 수준에 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대상자(n=148, 84.6%)가 '중' 정도라고 응답을 하였고, '하'라고 응답을 한 대상자는 24명(13.7%), '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명(1.7%)이었다. 가족형태에서는 소가족이 146명(83.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대가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5명(14.3%)이었고, 혼자 거주하는 대상자가 4명으로 2.3%를 차지하였다.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에서는 86명(49.1%)의 대상자가 '건강상태가 좋다' 라고 응답을 하였고, 75명의 대상자(42.9%)는 '그저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4명(8.0%)이었다.

2. 대상자의 영적안녕 상태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영적안녕 상태는 5점 척도 총 16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총점화 하여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통해 나타난 총점분포는 26.00에서 80.00이며 평균총점은 50.9943±10.7235이다 (Table 2).

일반적 특성별 영적안녕 상태에 관련해서는 종교와 경제활동 유무와 관련해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종교에서는 기독교인(58.99±11.40)이 영적안녕 상태가 가장 높은 것으로, 그 다음이 천주교(51.82±8.29), 불교

(47.80±9.39), 무교(46.15±7.55)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F= 2.576, P=.000).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51.51±10.33)가 하는 대상자(49.21±11.98)보다 영적안녕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F=1.517, P=.038).

3.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는 3점 척도 총 1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총점화 하여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통해 나타난 총점분포는 14.00에서 29.00이며 평균총점은 20.4914±2.6280이다(Table 3).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이성관계, 거주지, 종교와 본인의 경제활동 유무, 가족의 생활수준, 가족형태, 건강상태와는 통계적으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20.00±6.00)의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가 여자(20.50±2.5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1.809, P=.037).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죽

Table 2. Spiritual Well-being Score of the Respondents (N=175)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Spiritual well-being	220	26.00	80.00	50.9943	10.7235

Table 3. Perception Attitudes of Death Score in the Respondents (N=175)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Perception attitudes of death	175	14.00	29.00	20.4914	2.6280

Table 4. The Respondents' spiritual Well-being and Perception Attitudes of Death Score according to Demographic data (N=175)

Characteristics		Spiritual well-being			Perception attitudes of death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53.33±6.66	.515	.002	20.00±6.00	1.809	.037
	Female	50.95±10.79			20.50±2.57		
Age (yr)	≥19	50.18±10.66	1.174	.243	20.25±2.50	2.219	.008
	20~24	53.08±10.89			20.67±2.63		
	25~29	48.14±6.79			22.43±3.60		
	30≤	59.00±19.79			24.00±2.83		
Having friendship with the opposite sex	Yes	51.81±10.95	1.230	.187	20.84±2.49	.819	.656
	No	50.97±10.99			20.37±2.74		
	Other	48.40±8.18			20.53±2.74		
Residential area	Urban	50.29±10.82	.978	.520	20.28±2.53	.780	.698
	Rural	51.28±9.22			20.31±3.05		
	Other	54.23±11.96			20.32±3.05		
Religion	Christian	58.99±11.40	2.576	.000	20.88±2.86	1.018	.439
	Catholic	51.82±8.29			20.41±1.73		
	Buddhism	47.80±9.39			20.43±2.18		
	None	46.15±7.55			20.00±.00		
	Other	51.00±0			20.24±2.81		
Doing economic activity	Yes	49.21±11.98	1.517	.038	20.54±2.80	.996	.462
	No	51.51±10.33			20.48±2.59		
Economic status	High	52.67±5.03	1.028	.439	21.33±1.15	.960	.500
	Middle	50.82±10.64			20.57±2.67		
	Low	51.83±11.96			19.92±2.47		
Living arrangement	Extended family	50.48±7.14	.632	.959	21.20±2.43	1.049	.409
	Small family	50.97±11.34			20.38±2.67		
	Living alone	55.25±4.86			20.00±2.16		
Health status	No problems	51.65±8.59	1.151	.269	20.25±3.21	1.603	.078
	Not special	51.80±10.77			20.67±2.55		
	Have problems	50.61±10.90			20.52±2.56		

Table 5. Relationships between Perception Attitudes of Death Score and Spiritual Well-being in the Respondents (N=175)

		Spiritual well-being	Perception of death
Spiritual well-being	Pearson's correlation	1.000	.261*
	Sig. (2-tailed)	.	.000
Perception of death	Pearson's correlation	.261*	1.000
	Sig. (2-tailed)	.000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30세 이상에서 24.00 ± 2.83 으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29~25세(22.43 ± 3.60), 24~20세(20.67 ± 2.63), 20세 미만(20.25 ± 2.50)의 순으로 나타났다($F=2.219$, $P=.008$).

4.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인식 태도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영적안녕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ble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영적안녕 상태와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61$, $P=.000$).

고 찰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 상태는 본 연구를 통해 50.9943 ± 10.7235 의 중상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상순과 김정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결과[11]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오복자의 연구결과[12]와 유사하다. 연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족감에 대한 문항들 중 '장래가 좋을 것이다', '인생이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인생에는 진실된 목적이 있다'에서는 높은 점수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보여진다. 또한 종교적 안녕과 관련된 문항들 즉 '신과 생활에서 충족감을 느낀다', '신이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과의 관계가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신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한다', '신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 '신이 보살피 주고 있다'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대상자의 종교가 기독교나 카톨릭인 경우가 대상자의 41.7%를 차지하는 반면 종교가 없거나 불교인 대상자가

57.7%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서도 개인은 종교에 따라 영성의 개념을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13].

일반적 특성 중에서 영적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종교와 경제활동의 유무가 있었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앞서 기술된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영적안녕 상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본인의 경제활동의 유무에 따른 영적안녕 상태에 유의한 결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직 학생의 신분임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점이라 여겨진다.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는 본 연구에서 20.4914 ± 2.6280 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원희와 이영자[3]의 호스피스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와 비슷하며 몇 개의 문항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문에 보도되는 사망 기사를 자주 읽는다'는 항목에서는 봉사자들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비극이다'라는 항목에서는 간호대학생들에서 '그렇다'는 응답자가 약간 많았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성별과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에서보다는 여성에서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나이가 들고 여성일수록 죽음에 대해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죽음인식의 태도 사이에는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이 정신건강과 순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이화인[14]의 연구결과와 상통하는 바가 없지 않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간호제공자의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가 대상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12,15] 간호제공자의 영적안녕

상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간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대상자 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간호대학생들의 영적안녕 상태와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을 다룬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영적간호 교육에서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내용이나 중재를 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좀 더 효과적인 중재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제공자의 영적인 상태나 죽음을 인식하는 태도 등에도 관심을 갖고 이들의 전문적인 자질이 준비된 상태에서 임종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 약

목적: 임종환자의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는 그들의 남은 삶의 기간동안 겪게 될 고통이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써 간호제공자의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대상자에만 초점을 두어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제공자 입장에서의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를 파악해 보고자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가 영적안녕 상태와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3년 5월부터 6월 사이 일 대학 간호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와 영적안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총 191부를 수거하여 이 중 응답이 누락되지 않은 175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죽음인식에 대한 태도와 영적안녕 상태는 기술적 통계를 사용해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인식태도와 영적안녕 상태는 t-test, ANOVA를 사용해 분석하였고,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와 영적

안녕 상태의 관계분석에는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의 영적안녕 상태는 50.9943 ± 10.7235 이며, 종교와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영적안녕 상태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는 20.4914 ± 2.6280 이었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영적안녕 상태 간에는 유의한 순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61, P=.000$).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 상태와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 간에 상호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임종과정을 경험하는 대상자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에 간호제공자의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더불어 고려해본다면 영적간호 교육에서 대상자 뿐만 아니라 간호제공자의 영적안녕 상태와 죽음에 대해 인식하는 태도 또한 교육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할 부분임을 시사하는 바라고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1) 김정남, 송미옥. 호스피스 환자의 영적 안녕 상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3;17:255-65
- 2) 김정순, 전성숙, 황보선, 김은영. 암 환자가 지각한 가족 지지와 영적 안녕에 관한 조사 연구.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1999;16:67-80
- 3) 이원희, 이영자.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들의 죽음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1994;2:101-18
- 4) 장은영.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반응양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1-7
- 5) 조계화, 한희자. 말기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고통경험. 대한간호학회지 2001;31:1055-66
- 6) 김기숙. 우리나라 일부 간호교육기관의 영적간호 교육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995;4:90-7
- 7) 김정남, 박경민. 영적간호 교육이 간호학생들의 죽

36 이현주 :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에 관한 연구

- 음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999;13:114-27
- 8) Ellison CW.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 Psychol Theol 1983; 11:330-40
- 9) 전경구, 정봉도, 김용환. 생활스트레스, 영적안녕 및 우울간의 관계. 난청과 언어장애 2000;23:311-25
- 10) 이효경.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39-45
- 11) 최상순, 김정숙. 간호학생의 영적안녕, 희망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98;28: 1036-46
- 12) 오복자. 간호사의 영적안녕과 영적간호 중재와의 관계. 간호학탐구 1996;5:103-18
- 13) 이미라. 암환자의 영성 개념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27-78
- 14) 이화인. 일부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002;32:7-15
- 15) 최혜자. 간호학생 및 간호원들의 죽음의 공포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3-7